

데스크 시각



채희종 사회2부장

10여 년 전부터 명절만 되면 골치가 아팠다. 조부와 조모의 묘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묘가 불편해서가 아니다. 부모를 한자리에 모시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부친의 심사를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탓이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집안 어른들과 이장(移將)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묘지리를 찾기 어려워, 선산 한쪽의 소나무 대어섯 그루를 베어 내고, 그 자리에 조부모를 함께 모시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발목은 불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해 보자는 심산이었다. 말만 오갔을 뿐 실행하지 못했고, 지난 2월 설날 연휴도 불편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친환경 자연장으로 매장문화 바뀌야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 40~50대 가 장이라면 대개 한 번쯤 해 보지 않았을까 싶다. 조부모 이상 윗대 조상 묘를 어떻게 관리할지, 특히 부모님 사후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지는 참 어려운 숙제다.

더 이상 자연 훼손 없도록

웰빙시대가 되면서 주말이나 휴일이면 자연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강간이나 해남 땅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 여행을 하면서 차장 밖으로 주변 산을 보면 경치가 좋거나 전망이 희인 곳에는 어김없이 묘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을 위하고 집안을 과시하기 위한 이겠지만, 자연 훼손은 물론 도로 주변 경관마저 해치게 된다. 동네 뒷산이나 등산로 등에도 어김없이 이곳저곳에 묘들이 날려 있다. 버려진 지 오래 돼 허물어 지거나 잔디가 죽어 흉한 모습의 묘도 상당수다.

최근 화장 선택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면적을 넘는 9㎢의 묘지가 생겨난다고 한다. 임자 없는 무연고 묘도 1000만 기가 넘는 실정이다. 그나마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우리나라 화장률은 1991년 17.8%이던 것이 2000년 33.7%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5년 52.6%가 되면서 처음으로 매장률을 앞질렀으며, 2015년 12월에는 무려 82%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망자 10명 중 2명이 매장을 함으로써 묘지 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화장률은 각각 81.4%, 70.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광주에서는 1329기, 전남은 4667기의 묘가 새로 생기는 등 매년 광주·전남에서 6000기의 묘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 우리 국토는 더 이상 묘지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연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장은 불가피하다. 특히 출산을 저하로 자녀들이 줄어들면서 선조의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다.

도시공사의 가족묘 대안

화장물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조상 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해 묘지 면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버려진 묘는 법 제정을 통해 유골을 화장이나 자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훼손된 자연을 복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고민이던 조부모 이장 문제는 올 봄 유언한 기회에 해결됐다. 광주 도시공사가 최근 공급하고 있는 '8위용 가족 평장 분묘'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8위용 가족묘'는 도시공사가 묘지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이다. 광주는 물론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등 인접 시·군의 묘를 광주시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족묘는 화장한 유골을 토양에서 분해되는 단지에 넣어 평장을 하므로 환경오염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족묘는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묘가 이장된 뒤, 비어 있는 자리를 사용한다. 특히 8기를 안치하는 면적이 기존 묘 1기의 면적 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공사가 3000여 기의 8위용 가족묘를 조성했지만 아직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럼에도 도시공사는 올해 1800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 가족묘가 모두 분양되면 3만기의 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의 '8위용 가족묘'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chaeh@kwangju.co.kr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4·13총선과 호남인들의 시민주권 선언

면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묘미라고 말하곤 한다.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당에 얽매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겠해 어떤 지도자, 어떤 정당이든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최선의 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시민 주권을 바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호남인들과 더민주당, 그 전신 정당들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97년 대선 때 광주는 김대중 후보에게 무려 97%의 몰표를 던졌으며, 몰표에 대한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선택에 큰 자긍심을 가졌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고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과의 오랜 연애 과정에서 지역정치가 희생되기도 했지만 호남인들은 더 큰 대의를 위해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

이런 과거사를 고려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애들리(C. R. Attlee)로 교체되었다. 영국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을 존경하면서도 전후 영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회보장제의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 내각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면 이 사례를 소개하

화운동에서 호남이 행했던 역할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우려의 차원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일부는 지극히 편향된 정파적 시각에서 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더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지역주의에 토대를 둔 대립적 양당구도를 타개하고 강력한 제3당을 출현시켜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견인해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론이 아닌 정치현실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솔직히 전략적 선택에 타율된 호남인들이 아니고는 감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호남인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호남에 경쟁구도를 만들어져야 좀 더 나은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그래야 지역정치가 후진성을 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민주화의 고장이라는 칭호에서 벗어나 지역정치를 위해서, 혹은 제일 야당인 더민주당을 좀 더 강한 수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도 제3당을 육성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1945년 처칠을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영국인들은 5년 후 그와 보수당에게 다시 집권의 기회를 주었고, 덕분에

에 처칠은 정치인생을 보다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호남의 지배정당이 된 국민의당은 과거의 지배정당과는 달리 선거 때의 긴장감을 4년 내내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역시 지배정당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호남 여론에 보다 진지하게 귀 기울일 것이다. 다행히,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정국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제3당의 출현은 자의든 타의든 한국 정치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많이 유도해 낼 것이다. 만일 이런 희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정치사는 2016년 총선을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로 기록할 것이며 그 주역으로 호남 유권자들을 기억할 것이다.

한 마디로 2016년은 호남 유권자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민주권의 회복을 선언한 해이다. 중앙정치를 위해 지역정치를 일반적으로 희생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치와 지역정치가 윈윈하는 새로운 모델의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날이 가능한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철주 무안군수

KTX 무안공항역 간절한 바람 아시나요

산물이었다. '국제공항'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의 품격이 달라지고 지역 가치 상승으로 지역민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자긍심을 선사하기도 했다.

무안공항은 한국에서 4번째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탄생을 축하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의 어린 나무였다.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대중 연계 교통망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일 년 중 안개일수가 가장 적어 국제노선의 국제공항 역할을 명(命) 받았지만 활주로 등 기반시설 뒷받침은 이어지지 않았다. 세계 유수의 항공정비업체 뿐 아니라 항공산업 관계자도 무안공항에 대한 MRO(항공정비) 입지여건은 국내 최적이자라고 하나같이 언급했다.

전남도에서도 MRO 사업추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무안공항의 MRO 특화단지 지정 등을 위해 정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수많은 노력도 해 보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주공항에만 MRO 특화단지 및 주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원정책을 펴는 대신 무안공항은 외면했다.

그뿐 아니라 애초 광주공항과의 통합이전을 목적으로 건설했던 계획을 개항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아권집단과 정치적 판단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니 한발 짝 물러나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고 있다. 날기만 하고 도망가버린 매정한 엄마처럼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을 지방정부에 맡긴 채, 관심은커녕 양육비 지원조차 인색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10살이 되었건만 무안공항은 아직 뛰어나지못하는 미성숙한 아이가 돼버렸다.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몸부림을 쳤다.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수없이 문을 두드렸다.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우리도 잘 달릴 수 있는 유전자 있다"고. 무안공항에 국제노선이 하나, 둘 늘어갔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향해 항공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제법 공항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에서 관광개발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용객이 30만을 넘어섰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아니다. 무안공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발전역량 DNA를 가지고 있다. 이웃에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이 있고 오투쿠들이 한국을 앞 다투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권 항공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감당해 줄 허브공항이 절실하다.

이제 도망가 버린 엄마가 돌아와 늦된

아이의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태풍이나 안개 등 기상악화시 일반공항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는 인천공항의 운항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을 활용해야 한다. 연간 안개일수가 가장 적고 기상여건이 가장 우수한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5대양 6대륙을 향해 막강 장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편리한 대중 교통망이 구축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목포구간 무안공항 경유를 조속히,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경유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수요와 공급을 따지기에 급급하다. 어린나무는 심기만 하면 절대 잘 자랄 수 없다. 물을 주고 햇빛을 확보해 주고 때론, 필요한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갓 태어난 아이를 경제논리를 운운하며 돌보지 않으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성숙하기까지는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을 날기만 하고, 양육은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것인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社說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왜 갈수록 늘어나

광주 지역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대도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때 '실력 광주'를 뽑았던 광주 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내놓은 '2015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인 광주 중학교 비율은 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특히 2013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 역시 2013년부터 매년 기초학력 미달 중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의 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5년 5.2%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데다, 2013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인 머물러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어려운 정도로 학력이 낮

음을 말한다. 광주 지역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광주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기초기본학습 부진 학생 특별 보충 지도'를 내세워 전년도보다 무려 345%를 증액한 11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전남도 또한 '2018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2%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와 전남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 다행히 전남의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증액과 계획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초학력 미달'은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인 머물러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어려운 정도로 학력이 낮

단체장 생일 때 황금 열쇠 선물 관행이러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에 게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을 건네는 구시대 관행이 여전히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단체장 등의 생일에 황금 열쇠를 선물하고, 해외 출장 때 현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A시 5급(과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상조회비에서 2015년 5월 시장 생일 선물로 순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시가 183만 원)를 전달한 공무원들이 당시 시장에게 같은 종류의 생일 선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청 간부들은 이밖에 상조회비로 2015년 6월과 10월 부시장 2명에게 각각 순금 5돈으로 만들어진 황금 거북(시가 98만 원)을 생일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

행정부는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B군의 한 간부가 상조회비로 수차례에 걸쳐 군수 해외 출장 때 총 400만 원을 경비로 쓰라며 수행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

도 파악했다. 비록 상조회비에서 엄출했더라도 뒷사람 기념일에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거라김 없이 건네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잔재라 하겠다. 물론 일부는 선물을 상조회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이를 지켜본 하위 공직자나 고달픈 서민들이 느꼈을 위화감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행자부는 연루자에 대한 경정계를 요청했지만 전남도가 이를 불문 처리한 것도 문제다. 사실상 '상남'이나 다름없음에도 전남도는 관행을 구실로 정계 없이 인건 지시 공문만 내렸다고 하니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 도청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접받기 위해 너도나도 부단체장을 선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야 어느 시대인데 기관장 생일에 황금 열쇠나 황금 거북 선물인가. 이제부터라도 단체장은 스스로 오해받을 일을 삼가고, 그릇된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宗家(宗家)는 가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혈족을 중시하는 성씨 문화에서 종가는 곧 가문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뼈대 있는 종가에는 대대로 이어 온 규율과 풍속이 있다. 그 규율과 풍속이 무형의 자산이자 문화재다.

전남에서 가장 유명한 종가는 해남윤씨 가문일 것이다. 해남윤씨 어조은공파 종가인 '녹우당'이 유난 유명한 탓이다. 고산 윤선도의 고택으로 유명한 녹우당은 집 뒤 비자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췌~아' 하는 소리가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효종이 사부였던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지어 준 집을 뜯어와 고향 해남에 지었다 한다. 녹우당만큼 보물급 유물을 많이 보유한 종가도 없다. 공재 윤두서의 지하상은 국보 제240호이고 보물만도 종가 분석 등 3점이나 된다.

'타인능해'(他人能解)의 나눔 뒤주가 있는 구례 윤조루도 실은 문화유산이 공산군과 종가 유물이다. 조선 영조 때 류이주가 낙안 군수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남한의 3대 명당으로 꼽힌다.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종가는 나주임씨다. 나주시 다시면 회진에 있어 흔히

회진임씨라고도 하는데 조선 개국 때인 1392년 회진에 자리 잡았으니 올해까지 32대에 걸쳐 624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노산 이은상이 소동파보다 높게 평가한 천재 시인 임제를 낳은 종가다.

장흥군 관산읍 방촌마을은 종가의 집성촌이라 할 만하다. 장흥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5개 종가가 있는데 이중 4개가 방촌마을에 모여 있다. 모두 장흥 위서 종가로 오한 고택(반계공파)과 호남 3대 실학자인 존재 위백구 생가인 존재 고택(운천공파)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다.

나주에 있는 밀양박씨 청제공파 종가는 1년에 두 차례 고택 음악회로 일반인들과 친숙하고, 담양 창평의 장흥고씨 의열공파 종가에는 송순주와 송영주 등 전통주와 씨간장이 내림 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가 10대 이상 내려온 종가들을 모아 '종가회'를 구성했다. 종가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인데 지역사와 생활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남의 종가회 한류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